

『經書正音』의 판본과 간행 관련 인물 연구

A Study on *Gyeongseo-jeongeum* Edition and Publication-Related Figures

박철민 (Park, Cheol-Min)*

◁ 목 차 ▷

- | | |
|----------------------|------------------------|
| 1. 서론 | 4.3 書寫官 金亨瑞·李師夏 |
| 2. 한학서로 활용된 유교경전 | 4.4 監印官 金漢泰 |
| 3. 1735년 목활자본과 관련 인물 | 5. 1800년 『周易正音』과 관련 인물 |
| 4. 1784년 중간본과 관련 인물 | 6. 결론 |
| 4.1 檢察官 洪命福 | <참고문헌> |
| 4.2 校正官 玄燁·金益瑞 | |

<초 록>

조선시대 사역원의 학습 언어 중 가장 중요한 언어는 중국어(이하 漢語)였다. 건국 초부터 조선은 높은 수준의 한어 구사를 위해 유교경전을 교재로 채택하였다. 『經書正音』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편찬된 조선후기 한어 학습용 유교경전이다. 본고에서는 『경서정음』의 판본을 정리하고 간행에 참여한 인물을 살펴보았다.

『경서정음』의 판본은 크게 목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나뉜다. 목활자본은 1734년(영조 10) 院官 李聖彬 등의 자본으로 활자(경서정음자)가 제작되고, 1735년(영조 11) 10월에 이르러 인출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이성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전주이씨 증인집안 출신의 청학역관임이 확인되었다. 목활자본의 구성은 四書, 『詩經』, 『書經』, 『春秋』이다.

목판본은 1784년(정조 8) 목활자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번각되었다. 간행은 洪命福 등 6명의 한학역관이 주도하였다. 그간 간행시기와 간행자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았던 『周易正音』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1800년(정조 24) 한학교회역관 金益瑞가 간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판본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익서는 1784년 『경서정음』 간행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주역정음』은 판각된 직후 기존 7종의 『경서정음』 목판본과 함께 인출되어 진상되었다. 함께 인출된 『경서정음』 인본은 현재 규장각에 3질이 전한다.

要語: 經書正音, 司譯院, 譯官, 漢學書, 漢語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pcm9201@naver.com)

접수일: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9일
서지학연구, 제76집, 215-236,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215]

<ABSTRACT>

The most important language taught in the Sayeokwon (司譯院, Bureau of Interpreters) of the Joseon Dynasty was the Chinese language (hereinafter “Chinese”). From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the Joseon Dynasty adopted Confucian classics as teaching materials for an excellent command of Chinese. *Gyeongseo-jeongeum* (經書正音, Correct Pronunciation of Confucian Classics) is also Confucian classics compil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for the same purpose, i.e., learning Chinese. This paper arranged the editions of *Gyeongseo-jeongeum* and investigated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ir publication.

The editions of *Gyeongseo-jeongeum*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wooden movable-type edition and the wood-block edition. As for the wooden movable-type edition, the printing type of *Gyeongseo-jeongeum-ja* was fabricated for it in 1734 (the 1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with a capital provided by Lee Seong-bin, the Qing Language Interpreter, who was from the Jeonju Lee clan and belonged to the upper middle class of jungin (中人). The edition was published in October 1735 (the 11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nd it consisted of *Saseo* (四書, *Sishu*, Four Books), *Sigyeong* (詩經, *Shijing*, Classic of Poetry), *Seogyong* (書經, *Shujing*, Classic of History), and *Chunchu* (春秋, *Chunqiu*, Spring and Autumn Annals).

As for the wood-block edition, it is the reprint of the wooden movable-type edition, and was published in 1784 (the 8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after the previous edition’s errors were corrected. Its publication was led by six Chinese Language Interpreters including Hong Myeong-bok. In 1800 (the 24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Juyok-jeongeum* (for the Changes of Zhou [周易, *Zhou yi*]), which had been missing in the existing edition, was published by Kim Ik-seo, who was Chinese Language Interpreter, and was offered to the king together with the existing seven books of the *Gyeongseo-jeongeum* wood-block edition. At present, their three collections have been handed down and stored at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奎章閣). Kim Ik-seo als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the wood-block edition *Gyeongseo-jeongeum* in 1784.

Key words: *Gyeongseo-jeongeum*(經書正音), Sayeokwon(司譯院), official interpreter(譯官), Chinese language(漢語), a teaching materials of Chinese(漢學書)

1. 서론

조선은 역대로 중국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종이·화약 등 신진문물을 수입하거나, 종계변무와 같은 역사 기록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를 중국에 요청하거나, 설득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이하 漢音)은 많은 차이가 났으므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한자음으로는 중국과 소통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譯科이며, 역과를 통하여 선발된 인원을 譯官이라고 한다.

역관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조선에서는 중국어(이하 漢語), 몽골어, 여진어(뒤의 만주어), 일본어(이하 倭語)를 학습한 역관들이 있었다. 이 중 한어가 전문인 역관(이하 漢學譯官)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어가 조선에서 중시한 언어임을 방증한다. 그러나 한어가 조선시대 외국어 학습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부터 중국 사신을 접할 때 한학역관의 경서를 인용하여 구사하는 비유, 표현 등은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문신은 경서의 이해도는 높았으나 한어에 대한 이해도는 역관보다 뒤쳐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은 승문원의 문신들을 선발하여 한어 학습을 권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는 역관의 경서 이해도와 문신의 한어 구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역과의 과목 중에는 四書가 있었고, 문신은 漢學文臣殿講이라는 전강을 통해 한어를 평가받았다.

『經書正音』은 위의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 후기 간행된 한어학습서이다. 『경서정음』은 四書三經과 『春秋』 등 8종의 유교경전 正文에 漢音を 표기하였다. 이 때 한음은 한글을 사용하여 하나의 한자 아래 좌·우음을 표기하였다.

지금까지 『경서정음』은 윤병태(1974)¹⁾의 연구 이후 다양한 서지적 분석²⁾이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경서정음』 간행과 관련된 인물 및 『주역정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는 『경서정음』의 여러 판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간행과 관련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윤병태, “經書正音字考,” 『圖協月報』 제15권 제11호(도서관협회, 1974), 20-24.

2) 강순애, “조선 영조기의 도서관 및 간행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2). ; 강순애,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의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39집(한국서지학회, 2008. 6), 31-68. ; 안미경, “조선조 역학서의 판종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집(서지학회, 1990. 6), 603-634. ; 윤상기,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II),”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9), 61-86.

2. 한학서로 활용된 유교경전

조선은 개국 초인 1393년(태조 2) 9월 한어를 관장하는 司譯院을 설치하였다.³⁾ 이 때 어떠한 교재를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 사신 응대를 위해 구어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년 10월부터는 6학을 설치하여 권장하였는데, 譯學도 포함되었다.⁴⁾ 그 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提調를 두고 권장하였다.⁵⁾ 1416년(태종 16)에는 四孟朔에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해당 시험의 교재가 1426년(세종 8) 기사에서 확인된다.

예조에서 사역원 牒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전에 있었던 四孟朔 取才를 三館의 예에 따라 四書·『詩』·『書』·『古今通略』·『小學』·『孝經』·『前漢書』·『後漢書』·魯齋의 『大學』·『老乞大』·『朴通事』 등의 서책을 돌려 가면서 책을 앞에 펼쳐 놓고 강독하여 시험하였는데, 지난 경자년(1420)에는 모두 의도록 하였습니다. (…).”⁶⁾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四書·『詩經』·『書經』·『小學』·『孝經』·魯齋의 『大學』 등 다양한 유교경전으로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재는 원나라 許衡의 號이므로, 예문에 소개된 『大學』은 『大學直解』를 의미한다. 대개 몇 종의 문헌을 선별하여 시험을 쳤던 것으로 보이며, 간혹 전부 치르기도 하였다. 위 예문에서 제시된 경전 중 『소학』·『효경』은 『대학직해』와 같은 유형의 문헌인 『直解小學』·『孝經直解』으로 여겨진다. 해당 문헌은 蒙文直譯體 방식으로 유교 경전의 원문을 풀이한 문헌이다.⁷⁾

반면, 몽문직역체로 보이는 문헌들을 제외한 유교경전도 확인된다. 사서·『시경』·『서경』이 바로 그것인데, 몽문직역체가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서 중 『大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학직해』와는 다른 문헌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사역원 牒啓에 의거하여 漢學의 권장에 대한 조건을 아뢰기를, “(…) 본원의 前衡과 權知들이 매일 晴雨를 가리지 않고 모아서 업을 수습함이 해를 쌓은 바 있어, 이제는 이미 經書에 통하고 제법 재예를 이룬 자가 꽤 많습니다. (….) 『直解小學』·『老乞大』·『朴通事』 등의 雜語는 모두 한어

3) 『太祖實錄』 2년(1393) 9월 19일. “置司譯院, 肄習華言.”
 4) 『太祖實錄』 2년(1393) 10월 27일. “設六學, 令良家子弟肄習. (….) 四譯學, (….)”
 5) 『太宗實錄』 12년(1412) 10월 17일. “加置十學提調. 禮曹啓: “十學取才, 立法已久, 未有實効. (….) 勸勵後學.” 從之, 加置提調.”
 6) 『世宗實錄』 8년(1426) 8월 16일. 禮曹據司譯院牒啓, “在前四孟朔取才, 依三館例, 以四書·『詩』·『書』·『古今通略』·『小學』·『孝經』·『前漢書』·『後漢書』·魯齋『大學』·『老乞大』·『朴通事』, 周而復始, 臨文講試, 去庚子年, 並令背誦. (….)”
 7) 해당 한학서는 蒙文直譯體로 유교경전의 원문을 풀이한 것이다. 『대학직해』는 元代의 許衡이 편찬하였다. 『효경직해』는 元代 貫雲石이 1308년 『魯齋大學』을 본받아 당시 몽문직역체로 풀이한 것이다. 『직해소학』은 고려 말 귀의한 僕長壽가 소학을 풀이한 것이다. 해당 문헌에 대해서는 양오진, “朝鮮時代 直解類 漢學書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35권(중국어문연구회, 2007. 12), 21-47에서 소개하고 있다.

가 근본으로 되어 있사오나, 다만 경서를 읽어 의리를 연구하는 것 등에는 전혀 외고 익히지 않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經書·『通鑑』 등의 여러 서적들을 그 의리는 추구해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훈포의 正僞와 대의의 해설만을 시험하여 예에 따라 분수를 주게 하소서.”⁸⁾

위는 8년 뒤인 1434년(세종 16)의 『실록』 기사이다. 경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음훈의 正僞와 大義를 시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서를 읽고 의리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기사로 보아 정위는 올바른 발음으로 발화하는지, 大義는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역학에서는 한어 학습을 위하여 『春秋』가 활용되었다.⁹⁾

뒤에 살펴볼 목활자본 『經書正音』의 구성도 四書·『書經』·『詩經』·『春秋』로 되어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 전기 한어 학습용 경서와 같은 구성이다.

이상의 한어 학습용 경서는 역관과 문신의 고강에서 활용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역관의 경우 한어 수준을 점검하는 漢學考講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고강은 二六考講과 書徒考講이 있다. 이륙고강은 매월 2와 6이 들어가는 날 시험을 치루는 고강이다. 서도고강은 분기당 첫째 달 1일에 시행되었다.¹⁰⁾ 위 두 고강 모두에서 사서와 『시전』·『서전』·『춘추』가 시험 과목으로 확인된다.

위 문헌들은 실제 고강에서 활용되었는데, 『眉巖日記』의 1573년(선조 6) 4월 8일 기사에서 한학은 『直解小學』·『老乞大』·『孟子』·『尙書』·『春秋』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문신의 경우 殿講을 통해 한어 수준을 확인받았다. 문신을 대상으로 치르는 전강으로는 專經文臣殿講과 漢學文臣殿講이 있다. 전경문신전강은 성종대에 경서의 정밀한 공부와 관리들의 평시 학습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四書 중 二書와 五經 중 一經을 뽑아 시험을 강을 치룬 뒤,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강에 응시하였다.¹²⁾ 한학문신전강은 1510년(중종 5) 成希顔(1461-1513)의 건의로 설치되었다.¹³⁾

한어 외에도 조선에서 학습한 외국어로는 몽골어, 왜어, 여진어 등이 있었으나, 당시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외국어였던 한어마저도 천하다고 여겨 학습하려 하지 않았던 문신의 태도로 인해 한학 문신 이외의 몽학문신, 왜학문신 등은 개설되지 못하였다.¹⁴⁾

『경서정음』과 같은 한어학습용 경서는 한학문신전강에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銀臺條例』¹⁵⁾에 따르면 한학전강은 사맹삭 16일마다 치르며,¹⁶⁾ 당하관인 문신 중 승문원이 선별한다.¹⁷⁾

8) 『世宗實錄』 16년(1434) 2월 25일. 禮曹據司譯院呈啓漢學勸勵條件, “(…) 院前銜權知, 每日不分晴雨, 聚會習業, 積有年紀, 今已通經書稍成才者頗多, (….) 『直解小學』·『老乞大』·『朴通事』等雜語, 悉皆漢語根本, 但讀經書, 窮其義理, 全不誦習, 自今以後, 經書·『通鑑』諸書, 不必義理窮問, 但式音訓正僞, 大義解說, 隨例給分.”

9) 『明宗實錄』 11년(1556) 9월 9일. “漢語, 吏文於『春秋』, 或殿講, 或親試, 自祖宗朝有之, 然此乃無事之時也.”

10) 김유리, “조선시대 司譯院의 운영과 시험제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참조.

11) 『眉巖日記』 1573년(선조 6) 4월 8일. “漢學則試講『直解小學』·『老乞大』·『孟子』·『尙書』·『春秋』.”

12) 정지연, “조선 초기 文科 講經科目的 변화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93-94.

13) 『中宗實錄』 5년(1510) 2월 4일. 『中宗實錄』 5년(1510) 8월 25일 기사 참조.

14) 『成宗實錄』 13년(1483) 6월 6일 기사 참조.

15) 『銀臺條例』는 고종 7년(1870)에 편찬되었으며 승정원의 업무에 대한 사례와 규석을 정리한 『銀臺便攷』를 간주된 문헌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은대편고와 은대조례 항목 참조.

16) 『銀臺條例』 『漢學文臣殿講』, “四孟朔十六日行.”

선발된 문신을 한학문신이라고 한다.

한학문신은 조선전기 漢語文臣으로 불렸으나, 1741년(영조 17) 한학문신전강 제도가 復設된 이후(18)에는 漢學文臣으로 불렸다. 『경서정음』은 정조대 전경문신전강에서 활용된 기록이 있다. 전경문신전강에 『경서정음』이 활용된 것은 해당 전강에서 예외적으로 한학강을 겸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경서정음』은 문신의 한어 학습에도 활용되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경서정음』은 조선 전기의 한어학습용 경서 구성과 동일하며, 문신의 한어 학습을 위한 전강에 활용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 한어학습용 경서의 맥을 이은 문헌으로 여겨진다.

3. 1735년 목활자본과 관련 인물

『經書正音』은 목활자본과 목판본이 현전한다. 두 판본은 『通文館志』¹⁹⁾에 기재된 목활자 제작 시기와 『樓板考』에 기재된 목판의 판각 시기 및 내용으로 보아 목활자본이 먼저 간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활자본에 사용된 목활자는 經書正音字²⁰⁾라고 불린다. 현전 목활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과 아단문고²¹⁾에 소장되어 있으며, 『周易正音』을 제외한 7종이 확인된다. 목활자본 기록은 『통문관지』에서 확인된다.

『경서정음』: 『논어』 2본(本), 『맹자』 3본, 『중용』·『대학』을 합해 1본, 『시경』 3본, 『서경』 2본, 『춘추』 2본이다. 옹정 갑인년(1734, 영조 10) 院官 李聖彬 등이 재산을 내어 글자를 만들고(鑄字), 인출하여 들였다.²²⁾

『통문관지』의 기록을 보면 활자의 경우 鑄字라 표현하였지만, 현전 인본을 보아 목활자 제작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 위 예문에서는 『주역』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주역정음』은 당시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³⁾ 『통문관지』의 기록은 단편적이기에 간행 사유를

17) 『銀臺條例』 『漢學文臣殿講』. “文臣堂下, 年二十九以下人.”

18) 한학문신전강의 복설은 영조의 의지였다. 『英祖實錄』 17년(1741) 2월 15일 기사 참조.

19) 역관 金指南과 그 아들 金慶門이 1720년(숙종 46)에 편찬하였으며, 사역원의 업무지침서로 볼 수 있다. 이후 수차례 중간되었는데, 원문의 내용은 1778년 이후 증보되지 않았다. 『經書正音』은 1778년 중간 시 증보된 續編에 기재되어 있다. 『통문관지』의 판본에 대해서는 김운제, “奎章閣 所藏 『通文館志』의 간행과 판본,” 『규장각』 제29집(2006. 12), 61-9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 활자 명칭은 윤상기(2002)에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21) 아단문고 소장본의 경우 일부 결락이 있다. 현전 구성은 다음과 같다. 『大學正音』·『中庸正音』 합2卷 1册, 『論語正音』 卷3~4 1册, 『孟子正音』 卷1~2 1册, 『詩傳正音』 卷1~7 3册, 『書傳正音』 卷3~4 1册, 『春秋正音』 卷1~4卷 2册. (『論語正音』 卷1~2 1册, 『孟子正音』 卷3~6 2册, 『書傳正音』 卷1~2 1册缺.)

22) 『通文館志』 卷8 『書籍』. “【經書正音】 『論語』 二本, 『孟子』 三本, 『中庸』·『大學』 合一本, 『詩經』 三本, 『書經』 二本, 『春秋』 二本. 雍正甲寅, 院官李聖彬等, 捐財鑄字印納.”

23) 인본의 부재와 간행 시점은 뒤에 후술하겠다.

확인할 수 없으며, 1734년(영조 10)이 글자를 제작한 시점인지, 인출의 완료 시점인지 파악할 수 없다.

홍경이 말하기를, “사역원이 관청을 설치하여 판에 새기는, 漢語로써 刊出하는 사서삼경²⁴⁾이 지금 刊印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람하기 위하여 꺾내에 들일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²⁵⁾

위는 『승정원일기』의 1735년(영조 11) 10월 15일 기사이다. 해당 기록에서 제시된 사서삼경²⁶⁾의 특징으로 보아 『경서정음』이라 여겨진다. 실제 규장각에는 초인본으로 여겨지는 홍문관 내사본의 내사기가 1735년 10월 16일²⁷⁾로 기재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로 보아 『경서정음』은 1735년 10월 15일 인출이 완료되었고, 어람 직후 홍문관에 내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통문관지』에 기재된 1734년은 활자의 제작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 1> 1735년 인출된 『大學正音』 (규장각 소장)

1734년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李樞와 金時瑜 외의 역관은 나이가 어리지 않음에도 물건을 사고파는 말 밖에 할 줄 몰랐고, 과거에 학습을 申飭했으나 효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또 문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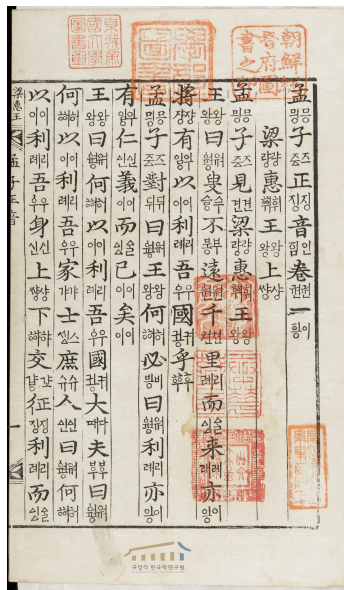
24) 여기서의 사서삼경은 현전 인본을 보아 四書·『詩』·『書』·『春秋』를 의미한다.
 25) 『承政院日記』 영조 11년(1735) 10월 15일. 興慶曰, “司譯院設廳刻板, 以漢語刊出四書三經, 今已畢刊云, 御覽次內入之意, 敢達.” 上曰, “依爲之.”
 26) 일반적으로 四書三經 중 삼경은 『詩經』·『書經』·『周易』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기록과 현전 목활자 인본 중 『주역정음』은 없으며, 후술할 『승정원일기』 정조 24년(1800) 4월 13일 기사를 보아 여기서 표현하는 삼경은 『시경』·『서경』·『春秋』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7) 雍正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弘文館.

경우 漢音에 해박하지 못해 승문원에 별도로 고강을 착실히 거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도 확인된다.²⁹⁾ 즉, 당시 문신의 한어 학습과 함께 역관의 한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서정음』은 이 같은 배경 하에 간인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서정음』 목활자본의 형태 서지사항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서정음』 목활자본의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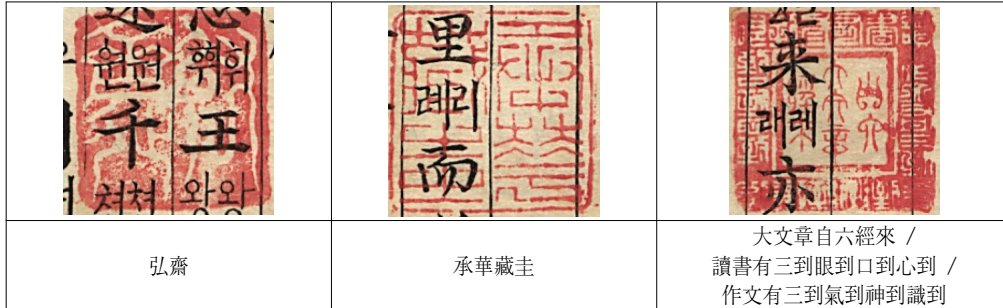
서명	판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³⁰⁾
經書正音	木活字本 (經書正音字)	司譯院	1735년 (英祖11)	13冊 27卷: 四周單邊 半郭 25-25.5×16.2-6cm, 有界, 10行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2-33×20.4-21.2cm	규장각, 아단문고

『경서정음』 목활자본 중에는 홍문관 내사본 이외에도 정조의 인장이 답인된 문헌도 존재한다. 인장을 살펴본 결과 정조는 세손 시절 처음 『경서정음』을 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정조의 인장이 답인된 목활자본 『孟子正音』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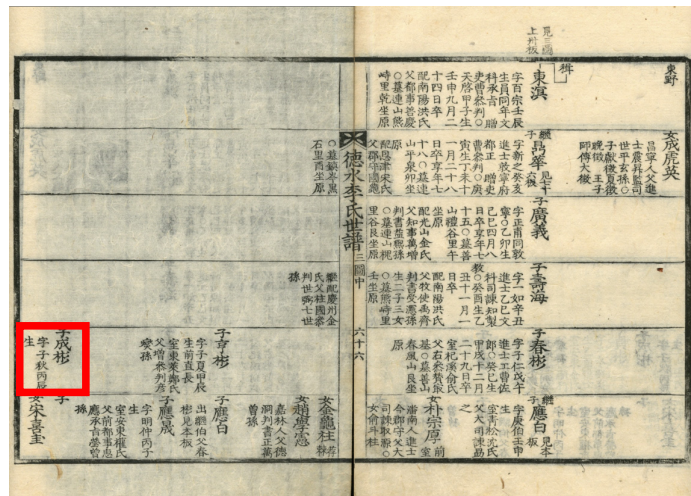
- 28) 『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5월 21일. 尙綱曰, “(…) 臣燕行時, 見譯官輩, 專不解漢音, 李樞·金時瑜外, 其所曉解者, 不過買賣之言而已. (….) 其中不無年少可使者, 而既不通語音, 則兩國交際, 將安用乎?”
- 29) 『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5월 21일. 李宗城曰, “近來文臣, 無曉解漢音者, 誠爲可慮矣.” (….) 趙尙綱曰, “文臣之不解漢音者, 此由於承文院褒貶, 久不設行之致矣. (….) 承文院褒貶時, 大臣考講, 而近年以來, 未聞開坐考講之事矣.” 上曰, “別爲分付於承文院, 使之着實舉行, 可也.”
- 30)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1997), 485를 보면 汎友社文庫에 『詩傳正音』이 소장되어있다는 소개와 도엽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 소장처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3> 『經書正音』에 답인된 正祖 인장의 유형과 印文³¹⁾

『경서정음』의 인출에 사용된 經書正音字는 『통문관지』를 통해 院官 李聖彬 등의 재산을 밑천으로 삼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성빈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성원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료 속에서 이성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³²⁾ 그로 인해 자분을 댄 이성빈은 조선후기 문신 李壽海(1693-1745)의 3남이라 제시되기도 하였다.³³⁾ 그러나 『德水李氏世譜』³⁴⁾를 살펴보면 3남의 이름은 成彬이며, 1736년생이다.³⁵⁾ 1736년은 『경서정음』이 인출된 뒤이기 때문에 이수해의 3남은 『통문관지』에 기재된 이성빈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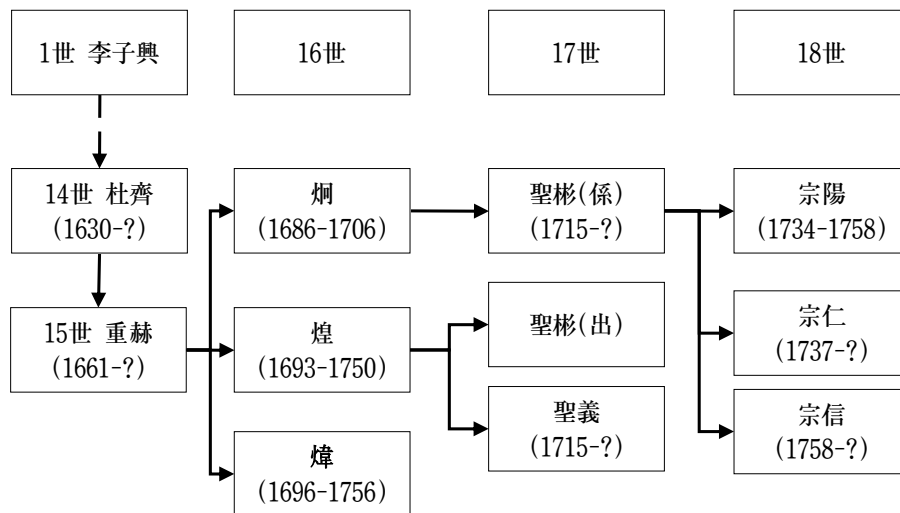
<그림 4> 『덕수이씨세보』에서 확인되는 이수해의 3남

- 31) 정조 인장의 인문은 백승호·김영진·박철상, “규장각 소장 중국본에 압인된 정조 장서인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0(2015. 12, 한국한문학회), 339-374를 참조하였다.
- 32) 윤병태(1974), 23. “(…) 李聖彬의 傳記資料는 譯科榜目이나 姓源錄에도 記錄이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
- 33)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마지막 접속 시간: 2018.08.18. 16시 36분]. “(…) 실제 이성빈은 『만가보(萬家譜)』의 제3책 덕수이씨보(德水李氏譜)에서 조선후기 문신 이수해(李壽海, 1693-?)의 제3자로 나와 있으므로 사역원 역관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34) 한국족보자료시스템(<http://jokbo.skku.edu/index.jsp>)
- 35) 『德水李氏世譜』 三圖中 66b. “【成彬】字子秋 丙辰生 (…).”

『경서정음』이 간행되던 시기 활동한 이성빈은 역관 李容肅(1818-?)³⁶⁾이 간행한 『全州李氏族譜』에 기재된 譯科僉樞 이성빈이다.

『전주이씨족보』에 확인되는 이성빈(1715-?)은 完昌大君 李子興(1305-?)의 후손으로 1715년(숙종 41)에 태어났다. 증조는 杜齊(1630-?), 조부는 重赫(1661-?)이며, 焯(1693-1750)의 장남으로 태어나 伯父인 炯(1686-1706)의 繼子로 入屬되었다. 字는 德光이며, 유명한 역관집안인 川寧玄氏 문중 玄沈(1692-1730)³⁷⁾의 딸과 혼인³⁸⁾하여 3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宗陽(1734-1758), 宗仁(1737-?), 宗信(1758-?)이 있다.

이성빈의 몰년은 확인되지 않으나, 3남인 宗신이 1758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경서정음』이 간인되던 1735년에는 확실히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1녀의 사위로는 안산 이씨인 李學淵이 있으며, 외손으로는 李命養(1763-?)³⁹⁾, 李正養(1760-?)⁴⁰⁾이 있다.



<그림 5> 이성빈의 가계도

중인 집안 가계의 종합보로 여겨지는 『성원록』에서 해당 인물이 파악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 까?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족보와 『성원록』을 대조하였다. 그 결과 『성원록』 영인본 88쪽에

36) 이용숙에 관해서는 金麗華, “조선후기 역관 李容肅의 행적과 작품 개관,” 『민족문화』 제49집(2017. 6), 261-2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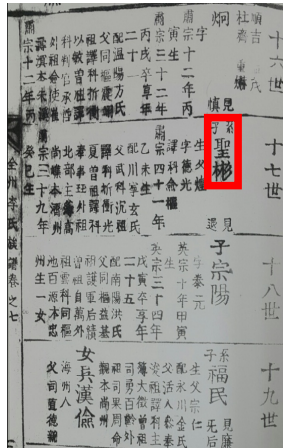
37) 역관족보 중 하나인 『川寧玄氏世譜』(1867년, 목활자본)에서 이름이 확인된다(한국계보연구회 편집부, “『川寧玄氏世譜』(1867년, 元),” 『한국계보연구』 5(2014. 12), 195-262).

38) 『천령현씨족보』 권4, 11-13장에서 이성빈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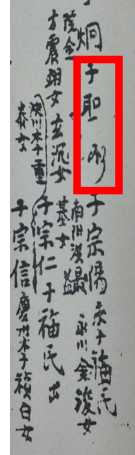
39) 이명양은 청학역관으로 장대한 분량의 연행일기를 기술하였다. <동아일보>, 1984년 12월 10일자 6면 좌측상단 “국내最長 燕行日記 발견 純祖시대 李命養이 기록” 기사 참조.

40) 이정양은 蒙學譯官으로 1801년(순조 1) 10월 冬至兼陳奏使行에 참여하여 북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행록선집』, 1962. 하권 “李基憲燕行錄” 좌목 참조.

炯의 아들로 聖彬이라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실제 문헌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알려졌던 바와 달리 역관 이성빈은 『성원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全州李氏族譜』에 수록된 李聖彬



『姓源錄』에 수록된 李聖彬

<그림 6> 『전주이씨족보』와 『성원록』에 수록된 이성빈

족보를 통해서도 해당 이성빈이 역관을 거쳤으나, 어떠한 언어를 전공으로 삼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비변사등록』에서 파악할 수 있다.

淸學 李聖彬

을묘년(1735년, 영조 11) 사은사의 행차 때에 放料遞兒로 따라가 겨우 燕京에 도착하였는데, 겨우 5-6일 만에 공교롭게도 황제의 초상이 났습니다. 아직 회답을 받아내지 못하였는데 관에 머무는 것은 기한이 있어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돌아가라고 재촉하므로 관을 떠난 후로 회자를 기다리느라 站마다 머물러 출발한 지 50여 일만에 비로소 奉황성에 도착하였는데 일행 수백 명이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신의 분부로 인하여 이성빈이 개인 재산인 銀子 250냥을 모두 털어 일행의 식량을 잇달 밀천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 三使臣이 그가 국사를 위해 사재를 출연한 정성을 고맙게 여겨 조정에 돌아와 筵席에서 여쭙고 논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삼사신이 모두 과직당해 登對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施賞의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⁴¹⁾

위는 1746년(영조 22) 윤3월 『비변사등록』의 기사 중 일부이다. 살펴보면 이성빈은 淸學으로 제시된 점을 알 수 있으며, 1735년(영조 11) 사은사 행차에 방료체야로 따라갔음을 알 수 있다. 정확은

41) 『備邊司謄錄』 영조 22년(1746) 윤3월 14일. “淸學李聖彬 乙卯年, 謝恩使行時, 以放料遞兒隨往, 纔到燕京, 未過五六日, 適值皇帝喪出, 回咨, 未即受出, 而留館有限, 不能久留, 迫令回還, 故離館之後, 等待回咨, 站站留住, 離發五十餘日, 始到鳳凰城, 而一行數百人 糧道俱匱, 故因使臣分付, 聖彬盡傾私儲銀子二百五十兩, 以爲一行繼糧之資, 則其時三使臣, 憐其爲公捐私之誠, 欲爲還朝後筵稟論賞, 而不幸三使俱爲見罷, 不得登對, 至于今尙未蒙施賞之典.”

滿洲語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성빈은 만주어를 전공하는 청학역관이다. 또, 개인 재산(私儲) 250냥으로 곤경에 처한 사은사 일행에 도움을 준 점으로 보아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1784년 중간본과 관련 인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서정음』은 목활자본 외에도 목판본이 전한다. 목판본은 규장각, 장서각,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등에 소장되어 전한다. 목판본의 간행 시기는 『누판고』와 규장각 소장 『경서정음』(청구기호 奎1674-v.1-16) 권10 『춘추정음』 권말의 간기⁴²⁾를 보아 1784년(정조 8) 사역원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전정음』 7권, 당저(필자주: 정조) 갑진년(1784) 사역원이 교정하여 새겼다. 설명은 書類에 보인다. [목판은] 사역원이 소장하고 있다. 印紙는 5牒이다.⁴³⁾

『서전정음』 4권, 당저 갑진년 사역원이 교정하여 새겼다. 경문만 기록하고, 화음으로 주를 달았다. 사역원이 소장하고 있다. 인지는 3첩 14張이다.⁴⁴⁾

『춘추정음』 4권, 당저 갑진년 사역원이 교정하여 새겼다. 설명은 서류에 보인다. 사역원이 소장하고 있다. 인지는 2첩 13장 1片이다.⁴⁵⁾

『대학정음』 1권, 『논어정음』 4권, 『맹자정음』 6권, 『중용정음』 1권, 당저 갑진년 사역원이 교정하여 새겼다. 설명은 서류에 보인다. 사역원이 소장하고 있다. 인지는 8첩 13장 1편이다.⁴⁶⁾

위는 『누판고』의 기록인데, 여기서도 『주역정음』의 서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1784년까지 『주역정음』은 간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또한 校刻을 보아 목활자본을 교정⁴⁷⁾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목활자본과 목판본의 판본을 비교하였을 때 목활자본을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84년 중간 사유는 1783년 7월 18일에 있었던 洪良浩의 상소에서 보이는 한어 학습 요청에 의한 것이다.

대사헌 洪良浩가 상소하기를

“(…) 대저 漢人들의 말은 곧 中華의 正音입니다. (…) 소위 상서들도 또한 겨우 길거리나 향간의 예삿말만 알게 될 뿐이니, 장차 어떻게 심정과 의지를 통하게 되고 辨難을 다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 華語를 학습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나라가 심정을 통해 가기는 오로지 언어에 달려 있으니, 거듭 사역원의 옛 법제를 엄격하게 하고 三學의 講規도 닦아서 복구하도록 하고, 문신을 신칙하여

42) 甲辰年冬重刊通文館藏板.

43) 『한국의 책판목록』, 945쪽. “『詩傳正音』 七卷, 當宁甲辰司譯院校刻, 說見書類, 司譯院藏. 印紙五牒.”

44) 『한국의 책판목록』, 947쪽. “『書傳正音』 四卷, 當宁甲辰司譯院校刻, 但錄經文, 註以華音, 司譯院藏. 印紙三牒十四張.”

45) 『한국의 책판목록』, 955쪽. “『春秋正音』 四卷, 當宁甲辰司譯院校刻, 說見書類, 司譯院藏. 印紙二牒十三張一片.”

46) 『한국의 책판목록』, 956쪽. “『大學正音』 一卷, 『論語正音』 四卷, 『孟子正音』 六卷, 『中庸正音』 一卷 當宁甲辰司譯院校刻, 說見書類, 司譯院藏. 印紙八牒十二張一片.”

47) 이 때 교정 방식은 오식된 부분을 올려내어 뒤에 종이를 덧붙여 서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어를 익히게 하고, 상서에게도 蒙學을 익히도록 勸課하여, 그전처럼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⁴⁸⁾

상소를 살펴보면 당시 한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신의 華語 학습과 象胥의 몽학 학습을 권장하도록 요청하였다. 화어는 한어의 異稱이며, 상서는 역관의 이칭이다. 몽학이라는 표현은 문맥을 보아 經史의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84년 重刊된 목판본의 형태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1784년 중간된 『경서정음』의 서지사항

서명	판종	간행처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⁴⁹⁾
經書正音	木板本	司譯院	1784년 (正祖 8)	13冊 27卷: 四周單邊 半郭 24.1-7x16.2-6cm, 有界, 10 行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 魚尾: 32.3-34.6x20-21.8cm	규장각, 장서각, 연세대, 이화여대,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경서정음』의 중간에 참여한 인물은 『춘추정음』 권말에 수록된 간기로 파악할 수 있다. 간기에 수록된 참여자는 6명이다. 여기서는 『경서정음』 목판본 중간 시 참여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7> 1784년(정조 8) 목판본의 간행 참여자 명단과 간기

48) 『正祖實錄』 7년(1783) 7월 18일. “大司憲洪良浩上疏曰: “(…) 夫漢人之語, 即中華之正音也. (….) 華語肄習事, 兩國通情, 專在語言. 請申嚴譯院舊制, 修復三學講規, 飭文臣習華語, 勸象胥熟蒙學, 俾無如前拋棄.” 從之.”

49) 장서각, 연세대학교에는 『맹자정음』,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어정음』과 『시전정음』이 소장되어 있다. 『논어정음』은 4권 2책 중 권1-2 1책, 『시전정음』은 7권 3책 중 권3-4 1책만 있는 영본이다.

4.1 檢察官 洪命福

홍명복(1733-?)은 南陽 洪氏로, 字는 敬受이다.⁵⁰⁾ 전공은 漢學이며, 증조는 몽학역관인 洪萬載(1651-?), 조부는 『倭語類解』를 편찬한 왜학역관 洪舜明(1677-1745)의 형제인 講隸習讀官 洪舜濟(1686-?)이다. 부친은 司譯院正, 漢學教誨 등을 맡은 洪大成(1709-?)이며, 동생은 漢學教誨譯官을 지낸 洪宅福(1749-?)이다. 자손으로는 아들인 한학역관 洪得輿(1772-?), 손자인 한학교회역관 洪周喆(1791-?)이 있다.

홍명복은 1753년(영조 29) 역과에 1등 2위로 입격하였다. 1758년(영조 34)에 교회역관이 되었으며, 여러 사행에 동참하였다.⁵¹⁾ 또, 徐命膺(1716-1787)이 『方言類釋』⁵²⁾을 편찬할 때, 대동한 역관⁵³⁾이다. 이로 보아 홍명복은 한어에 능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홍명복은 1784년 『경서정음』 중간 시 檢察官으로 참여하였다.

4.2 校正官 玄燁·金益瑞

玄燁(1749-?)⁵⁴⁾는 川寧玄氏이다. 초명은 燿이며, 字는 釋明이다.⁵⁵⁾ 한학역관이며, 증조는 武科 萬戶 尙夏(1667-1718), 조부는 사역원 청학역관을 지낸 深(1704-1744), 부친은 사역원 왜학역관을 지냈던 啓根(1726-1799)이다. 1773년(영조 49) 역과에 장원하였다. 1782년(정조 6) 한학교수였으며, 통정대부에 가차되었다.⁵⁶⁾ 1777년(정조 1)에 교회가 되었다. 1804년(순조 4)에는 『同文彙考』續集 편찬에 참여하였다.⁵⁷⁾ 경서정음 중간 당시 南部에 거주하였다.⁵⁸⁾

50) 『교회청선생안』: 行首 訓上 洪命福 敬受 癸丑 南陽人 戊寅陞 (...).
 『교회청선생안』은 16세기부터 1895년대까지 교회를 역임한 역관들이 기재되어 있다.
 51) 홍명복의 사행 참여 시기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참여시기	출처	참여시기	출처
1760년(영조 36)	『北轅錄』 권1	1780년(정조 4)	『熱河日記』 『行在雜錄』
1766년(영조 42)	『湛軒書』 『外集』 권7	1790년(정조 14)	『燕行紀』 권1
1778년(정조 2)	『靑莊館全書』 『入燕記』	1791년(정조 15)	『燕行錄』 『奇遊錄』

52) 『方言類釋』은 1778년(정조 2) 洪命福 등에 의해 편찬된 어휘집이다. 여기에는 중국·일본·몽골·만주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53) 『保晚齋集』 卷7 “方言類釋序”: 명을 받들어 신이 역관 洪명복 등을 대동하여, 널리 한·청·몽·왜의 방언 중 지금 쓰이는 바를 널리 채집하였습니다(復命臣率舌官 洪命福等. 博採漢·清·蒙·倭之方言, 今時所用者.).
 54) 연주현씨대동보편찬위원회, 『延州玄氏大同譜』, 2001에서는 현후의 몰년을 正宗己卯年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인물들의 생몰년에는 正宗이 아닌 正祖로 기재되었으며, 정조 재위 기간 중에는 기묘년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는 오류로 여겨진다.
 55) 『교회청선생안』: 玄燁 釋明 乙巳 川寧人 丁酉陞 資憲知樞 (...).
 56)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11월 27일. “漢學教授單 玄燁·尹行元·尹履相, 已上今加 通政.”
 57) 『承政院日記』 순조 4년(1804) 12월 3일. 李好敏, 以承文院都提調意啓曰, “凡係事大交隣之文書, 必須引舊證今, 按例取辦然後, 可無疑眩錯繆之慮. 故昔在先朝戊申, 始命分門彙輯, 作爲一書, 名之曰同文彙考, 而每式年, 隨

김익서(1739-1803), 한학을 전공한 역관이다. 『주역정음』을 간행한 인물이므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인물은 『경서정음』 중간 시 교정관으로 참여하였다.

4.3 書寫官 金亨瑞·李師夏

金亨瑞(1749-1799)는 牛峯金氏로 字는 道常이다. 한학역관이며 증조는 指南(1654-1718), 조부는 纘門(1690-1714)이다. 부친은 弘說(1708-1750)이며, 형제는 履瑞(1727-1795), 晉瑞(1736-1752), 益瑞(1739-1803), 健瑞(1743-1807)가 있다. 1773년(영조 49) 역과 3등 6위로 입격하였다. 형제 중 익서가 1800년 『주역정음』을 간행한 인물이므로 가계는 『주역정음』 간행자를 살펴볼 때 상세히 서술하겠다.

李師夏의 생몰년과 본관, 가계는 미상이다. 그러나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1765년(영조 41) 한학으로 역과에 입격한 것을 알 수 있다.⁵⁹⁾ 두 인물은 서사관으로 『경서정음』 중간에 참여하였다.

4.4 監印官 金漢泰

金漢泰(1762-1823)는 牛峯金氏로 字는 景林이다. 한학역관이며 부친은 위 김형서의 형인 이서이다. 1801년(순조 1) 교회역관이 되었고, 이후 譯科知樞에 이르렀다.⁶⁰⁾ 자손으로는 學時, 學禧과 서자 學明이 있다. 『경서정음』 중간 시 감인관으로 참여하였다.

이상의 중간 시 참여자의 성명, 생몰년, 전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經書正音』 중간 참여인물

성명	생몰년	당시 나이	전공	직책
洪命福	1733-?	52	한학	檢察官
玄 煇	1749-?	35	한학	校正官
金益瑞	1739-1803	46	한학	校正官
金亨瑞	1749-1799	36	한학	書寫官
李師夏	?-?	미상	한학	書寫官
金漢泰	1762-1823	23	한학	監印官

類編入, 續卽刊行事定式矣. (….) 而自甲寅至今十年之間, 采輯校閱, 以至監印者, 專委於譯官玄煇·邊鎬兩人, 則其在獎勵之政, 不可無酬勞之道. 譯官玄煇·邊鎬, 竝施加資之典, 何如?” 傳曰, “允.”

58) 『承政院日記』 1784년(정조 8) 10월 1일. “(…) 南部居司譯院前銜玄煇上言 (…).”

59) 『承政院日記』 영조 41년(1765) 3월 21일. “上命譯科入格人入侍. 漢學張宅裕·金宗仁·李光默·李光鼎·金世禧·李師夏·金履柔·韓宗學·林世茂·李亨基·丁載達·李光稷, 蒙學金麗河, 淸學金漢謙·李成夏等進伏.”

60) 『교회정선생안』: 訓上 金漢泰 景林壬午 牛峯人 辛酉陞 正憲 知樞 (…).

이상을 살펴보면 1784년 중간된 『경서정음』은 사역원 소속의 한학역관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홍명복의 주도 하에 중간이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5. 1800년 『周易正音』과 관련 인물

1784년 중간 당시까지 간행되지 않았던 『주역정음』은 1799년(정조 23) 10월 專經文臣殿講에서 『경서정음』을 교재로 활용하였을 때 판본이 없던 것으로 말미암아 간행되었다.⁶¹⁾ 당시 사역원에서 물력을 들여 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학교회역관인 김익서가 판각하게 된다.

서유문이 사역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강 때 쓰이는 四書·二經·『春秋正音』은 다 판본이 있으나, 『주역정음』은 아직 판본이 없습니다. 한학교회역관 金益瑞가 自願하여 판을 새기고, 『주역정음』 및 사서·이경·『춘추정음』을 함께 인출하여 진상하였습니다.”⁶²⁾

위 기록을 살펴보면 김익서에 의해 간행된 『주역정음』은 1800년 당시 기존 『경서정음』 인본과 함께 인출되었다. 해당 인본은 현재 규장각에 3질이 전한다. 이외에도 일본 오구라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단행본으로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주역정음』의 형태 서지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주역정음』의 서지사항

서명	판종	간행인	간행시기	판식	소장처
周易正音	木板本	金益瑞	1800년 (正祖 24)	3冊 4卷: 四周單邊 半郭 23.3x16-16.1cm, 有界, 10行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2.2-33.1x20.8-21.5cm	규장각, ⁶³⁾ 연세대, 일본 동경대 오구라 문고 ⁶⁴⁾

그간 이성빈 외 『경서정음』 간행과 관련된 인물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자발적으로 『주역정음』을 간행한 김익서에 대하여 본 절에서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익서(1739-1803)⁶⁵⁾는 字가 君謙 혹은 遜之이며, 한학교회역관, 사역원정 등을 거쳤다. 1762년(영조 38)에 1등 1위로 역과에 장원하였다. 증조는 『新傳煮硝方』·『역어유해』·『통문관지』 등을

61)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10월 13일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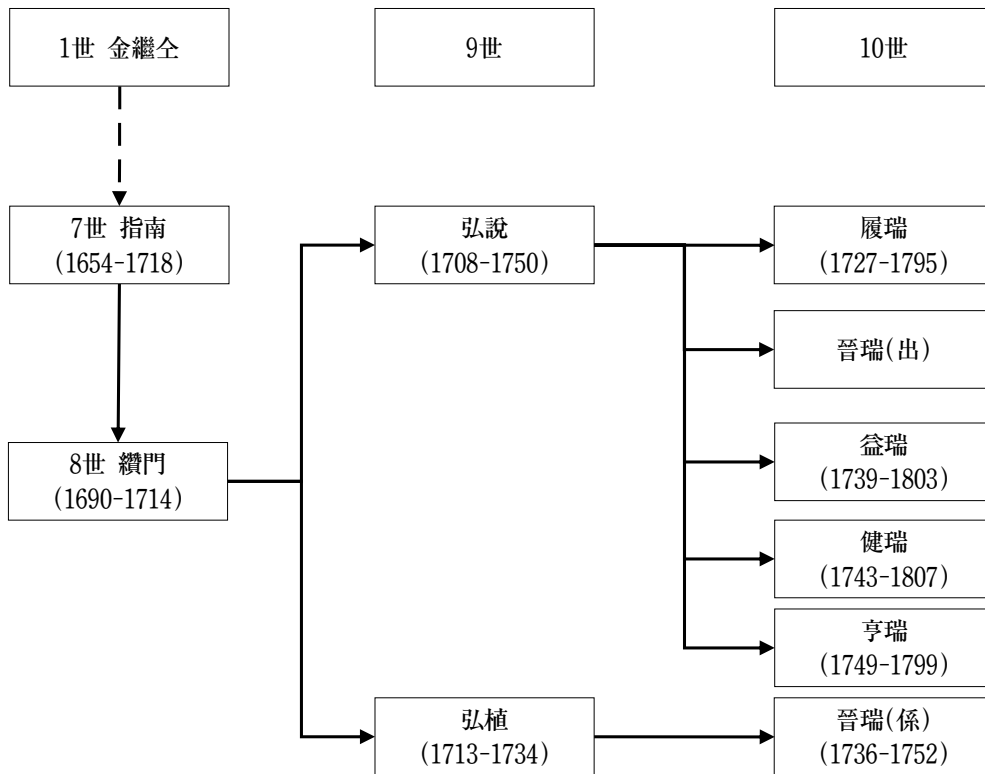
62)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4월 13일. 徐有聞, 以司譯院都提調意啓曰, “殿講時所用 四書·二經·『春秋正音』, 俱有板本, 而『周易正音』, 尙無板本. 漢學教誨譯官 金益瑞, 自願刊板, 『周易正音』及 四書·二經·『春秋正音』, 竝爲印出進上.”

63) 규장각에는 『경서정음』 완질이 3부 있다. 『주역정음』은 『경서정음』에 포함되어 있다.

64) 연세대와 오구라 문고 소장본은 단행본이다.

65) 『경서정음』 중간 관련자에서 살펴본 金亨瑞와 겹치는 인물은 생몰년을 생략하겠다.

편찬한 김지남이다. 조부는 찬문이며, 부친은 흥열이다. 형은 『박통사신석』·『동문유해』 편찬에 참여한 履瑞와 晉瑞가 있고, 동생으로는 『증정교린지』·『침해신어문석』을 편찬한 健瑞, 『경서정음』 중간에 참여한 亨瑞가 있다.⁶⁶⁾ 자손으로 1녀를 두었다. 1녀의 지아버는 한학교회를 지낸 금산이씨 집안 李時亨(1773-?)이며, 외손자로 교회를 지낸 한학역관 李埜(1803-?), 李執(1809-?)⁶⁷⁾가 있다. 이예의 아들 중에는 『華音啓蒙』을 편찬한 李應憲(1838-?)이 있다.



<그림 8> 김익서의 가계도

김익서는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아 21세에는 사역원에서 차세대 역관 양성을 위해 선발한 역관 자체 10인 중 한사람으로, 역과에 입격하기 이전부터 사역원에서 한어를 학습하였다.⁶⁸⁾

24세인 1762년(영조 38)에는 역과에 장원하였으며, 1765년(영조 41) 『박통사신석』 편찬 시 서서관, 1784년 『경서정음』 중간 시에는 교정관으로 참여하였다. 1799년(정조 23) 教誨譯官이 되었다.⁶⁹⁾

66) 이상 우봉김씨에 대해서는 김양수, 『조선후기 中人 집안의 발전』 (서울: 백산자료원, 2008)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김익서의 문헌 간행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김익서를 상세히 살펴보겠다.
 67) 장인진, “조선후기 譯官族譜의 考察 - 『金山李氏世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권(2016. 6), 121-172에 따르면 금산이씨의 중인집안 족보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에 『金山李氏世譜』(1865)가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68) 『備邊司謄錄』 영조 35년(1759) 12월 25일 기사 참조.

1800년에는 『주역정음』을 판각하였다. 『주역정음』은 1799년 10월 인본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1800년 4월에 진상되었으므로 약 6개월간 판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문이 사역원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무릇 책을 구매하거나 책을 간행한 자는 한 본은 내각에 보내 입계한 연후에 비로소 草記로 상을 청할 일이라고 이전 경술년 정식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주역정음』의 刊板에 쓰인 재산은 상을 논하는 도리에 있어 합당합니다. 근례에 의거하여 가자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자 전교에 이르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셨다.⁷⁰⁾ 역관 김익서는 지금 通政으로 加資를 더하는 일로 承傳함.⁷¹⁾

위 예문을 통하여 김익서가 『주역정음』 판각으로 통정대부에 가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책을 구매하거나 간행한 자는 논상하는 定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정식은 아래와 같다.

이조승이 사역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왜학당상역관인 최기령이 『隣語大方』 다섯 책을 구입하였으니 실로 언어를 익히는 자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 한학전함 김형우 또한 개인 재산으로 『捷解蒙語』·『蒙語老乞大』·『蒙語類解』 등 여러 책을 바로잡아 고쳤으며, (…) 최기령과 김형우 등은 재산을 내어 공력을 들인 정성이 남달리 매우 가상합니다. 등록을 상고하니 책을 간행한 노고로써 가자의 은전을 입은 자 또한 그 예가 많았습니다만, 일이 恩賞이란 중요한 법전에 관계되었기에 아래에서 감히 제멋대로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하겠습니까? (…)”전교에 이르기를, “(…) 갑자기 가자의 은전을 시행하자고 하면 어찌 은상을 허락할 수 있는가? 단지 본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醫司 또한 그렇다. 생각건대 雲觀이 간출한 책은 入啓하여 어람을 거치고 구매한 책 또한 많이 稟旨했다. 이후 관상감, 사역원, 의사를 무론하고 새로 구입한 것이나 새로 간인한 것 한 본은 내각에 보내어 입계한 연후에 비로소 초기로 상을 청하라. (…) 지금부터 이 정식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⁷²⁾

위는 1790년(정조 14) 『승정원일기』의 기사이다. 당시 사역원은 『인어대방』을 구입해온 최기령과 蒙學三書⁷³⁾를 개인 재산으로 바로잡은 한학전함 김형우의 가자를 요청하였다. 정조는 사역원, 醫司(필자주: 內醫院·典醫監·惠民署)에서 갑자기 가자를 요청하면 할 수가 없음을 밝히고, 관상감과

69) 『교회청선생안』: 訓上 金益瑞 遜之 己未 牛峯人 己未陞 嘉善 父院正弘說 祖院正纘門 曾祖院教誨知樞指南 外祖韓山趙尙璧 妻父安東院嘉善張世賢 祖院嘉善文翼 曾祖武科折衝有貴 外祖唐城李 再室父井邑李寅郁 祖宜翰 曾祖德祥 外祖清州韓昌憲.
70)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4월 13일. 徐有聞, 以司譯院都提調意啓曰, “(…) 而凡購書刊冊者, 一本送于內閣入啓, 然後始爲草記請賞事, 曾有庚戌定式. 今此『周易正音』之費財刊板, 合有論賞之道, 依近例, 施以加資之典, 何如?” 傳曰, “允.”
71)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4월 15일. “譯官金益瑞, 今加通政加資事, 承傳.”
72) 『承政院日記』 정조 14년(1790) 7월 19일. 李祖承, 以司譯院提調意啓曰, “(…) 倭學堂上譯官崔麒齡, 購納『隣語大方』五冊, 實爲學語者之指南. (….) 漢學前銜金亨宇, 亦以私財, 釐正『捷解蒙語』·『蒙語老乞大』·『蒙語類解』等諸書, (….) 崔麟齡·金亨宇等, 捐財效勞之誠, 殊甚可尙, 邇考謄錄, 以刊冊之勞, 得蒙加資之典者, 亦多其例, 而事係恩賞重典, 自下不敢擅便, 何以爲之? (….)” 傳曰, “(…) 輒施加資之典, 豈有如許恩賞乎? 不但本院爲然, 醫司亦然. 惟雲觀刊出之冊, 則入啓經覽, 購來之書, 則多亦稟旨, 此後無論雲觀譯院醫司, 新購者新刊者, 一本送于內閣, 入啓然後, 始以草記請賞, (….) 自今番, 依此定式施行, 可也.”
73) 『蒙語老乞大』·『捷解蒙語』·『蒙語類解』를 말한다.

같이 한 본을 내각에 보내어 입계한 연후에 상을 요청하도록 정식으로 규정하였다. 김익서는 위 정식에 의하여 가자되었다.⁷⁴⁾

이후 김익서는 1801년(순조 1) 陳奏兼冬至使 행렬에 참여하여 북경을 다녀온다.⁷⁵⁾ 이후인 1802년(순조 2) 『승정원일기』 기사를 살펴보면 1801년 사행에서 역관들이 순탄하게 일처리를 하여 正使였던 曹允大(1748-1813)가 가자를 요청하는데, 이때 김익서의 성명도 확인된다. 순조는 이를 허락함에 따라 통정대부였던 김익서는 가선대부에 올랐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족보에서도 김익서는 譯科 嘉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가자된 이듬해인 1803년 6월 17일에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양주 오금리⁷⁶⁾에 묻혔다.⁷⁷⁾ 김익서의 행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김익서의 행적

연도	나이	내용	근거
1739년(영조 15)	1세	弘說의 3남으로 출생	우봉김씨세보
1759년(영조 35)	21세	젊고 재예가 있는 역관 자제로 선발되어 사역원에서 한어를 학습	승정원일기
1762년(영조 38)	24세	역과 1등 1위로 장원	역과방목 ⁷⁸⁾
1765년(영조 41)	27세	박통사신석 편찬 시 서서관으로 참여	박통사신석 권2 권말
1784년(정조 8)	46세	경서정음 중간 시 교정관으로 참여	경서정음 권10 권말
1799년(정조 23)	61세	教誨譯官이 됨	교회청선생안
1800년(정조 24)	62세	周易正音を 관각함 통정대부에 가자됨	승정원일기
1801년(순조 1)	63세	陳奏兼冬至使에 참여하여 북경을 다녀옴	
1802년(순조 2)	64세	가선대부에 가자됨	
1803년(순조 3)	65세	6월 17일 사망	우봉김씨세보

이상을 살펴보면 『경서정음』의 간행에는 모두 역관이 관련되어있다. 특히 간행 기록과 인물들을 살펴보면 역관 개인 재산을 내놓거나, 팀을 구성하여 인출을 주도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판각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개인의 자발적 판각은 국가에서 평가하여 그에 준하는 상을 주는 것도 확인된다.

이상 살펴본 바 『경서정음』은 조선시대 역관들의 문헌 간행 참여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사역원의 문헌에 참여한 역관의 가계를 밝히고 문헌의 편찬·간행자로서 역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74) 이 정식은 순조 8년·10년, 현종 8년 등의 『승정원일기』에서도 시행되는 것이 확인된다.

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燕行錄選集』, 1962. 하권 『李基憲燕行錄』, 좌목에 그 이름이 보인다.

76) 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77) 『牛峯金氏世譜』: 益瑞, 字君謙, 譯科嘉善, 英廟己未十月初五日生, 純廟癸亥六月十七日卒, 享年六十五, (…)
墓楊州梧琴里.

7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b16024-98) 79b 참조.

6. 결 론

본고에서는 『經書正音』의 판본과 간행 관련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漢語 학습용 유교 경서는 조선 전기부터 확인된다. 특히 蒙文直譯體인 문헌을 제외하면 초기 『경서정음』 인본의 구성과 동일한 四書와 『詩經』·『書經』·『春秋』로 구성되어 있다.

위 한어 학습용 경서는 역관의 경서 이해도와 문신의 한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경서정음』은 조선 전기 한어 학습용 경서의 맥을 이은 문헌으로 여겨진다.

한어 학습용 경서인 『경서정음』은 四書三經과 『春秋』의 正文에 漢音을 한글로 주기한 문헌이다. 『周易正音』을 제외한 7종의 인본은 1735년(영조 11) 經書正音字라는 목활자로 인출된 이후 1784년(정조 8) 목판본으로 重刊되었다. 『주역정음』은 1800년(정조 24)에 간행되어 기존 7종의 목판과 함께 인출되었다.

1735년 목활자 제작에 필요한 자본을 내놓은 院官 李聖彬은 그간 덕수 이씨 집안 출신으로 李壽海의 3남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이수해의 3남은 1736년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成彬임이 족보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경서정음』과 관련없음이 입증되었다.

『備邊司謄錄』·『全州李氏族譜』·『川寧玄氏族譜』와 『姓源錄』의 자료에 따라 이성빈은 전주이씨 중인집안 출신의 청학역관이며, 1735년(영조 11) 사은사 행렬에 동행하여 북경을 다녀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성원록』에는 이성빈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원록』에 기재된 이성빈의 이름중 彬이 杉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성빈의 생년은 1715년(숙종 41)이며, 몰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주이씨족보』에 기재된 3남 宗信의 생년이 1758년(영조 34)인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까지 생존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784년(정조 8) 『경서정음』 중간은 洪命福 외 5인의 漢學譯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洪命福은 檢察官, 玄煥·金益瑞는 校正官, 金亨瑞·李師夏는 書寫官, 金漢泰는 監印官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널리 알려진 역관집안임을 알 수 있다.

1800년 『주역정음』 간행은 1799년(정조 23) 10월 專經文臣殿講 시 『경서정음』을 교재로 활용되었을 당시 『주역정음』 인본이 없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약 6개월간 한학역관 金益瑞에 의하여 판각되고, 기존 7종의 목판본과 함께 인출되어 진상되었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3질이 전한다.

『주역정음』을 간행한 金益瑞는 牛峯金氏이다. 1739년에 弘說의 아들로 태어났다. 형제 중에서는 사역원 문헌 간행에 참여한 인물이 다수 존재한다. 김익서는 1762년(영조 38) 역과에 입격하였으며, 이후 『박통사신석』, 『경서정음』 중간에 참여하였다. 『주역정음』 간행 공적으로 통정대부에 가자되었으며 1801년(순조 1) 사행에 동행하였다. 1802년(순조 2)에는 가선대부에 가자되었고, 1803년(순조 3)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경서정음』은 역관들의 다양한 문헌 간행 참여 양상을 볼 수 있다. 추후 서지학적 관점에서 문헌의 편찬·간행자로서의 역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원문자료

『教誨廳先生案』
『鏤板考』
『德水李氏世譜』
『眉巖日記』
『保晚齋集』
『備邊司謄錄』
『西序書目草本』
『世宗憲皇帝實錄』
『承政院日記』
『牛峯金氏世譜』
『銀臺條例』
『全州李氏族譜』
『朝鮮王朝實錄』
『川寧玄氏族譜』
『通文館志』

2. 연구논문 및 단행본

김양수. 『조선후기 中人 집안의 발전』. 백산자료원, 200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姓源錄』. 旴晨社, 19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燕行錄選集』. 1962.
연주현씨대동보편찬위원회. 『延州玄氏大同譜』. 2001.
이성무·최진옥·김희복.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정형우·윤병태 共編. 『韓國의 冊板目錄』. 보경문화사, 1995.
천혜봉. 『한국서지학』. 민음사, 1997.

강순애. “조선 영조기의 도서편찬 및 간행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2.
강순애. “朝鮮朝 한글活字 版本을 통해 본 活字鑄造法의 技術的 發展에 관한 考察.” 『서지학연구』 제39집(한국서지학회, 2008). 31-68.
金麗華. “조선후기 역관 李容肅의 행적과 작품 개관.” 『민족문화』 제49집(한국고전번역원, 2017). 261-291.

- 김유리. “조선시대 司譯院의 운영과 시험제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윤제. “奎章閣 所藏 『通文館志』의 간행과 판본.” 『규장각』 제29집(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61-92.
- 남권희. “西序書目籤錄 解題.” 『奎章閣』 第12輯(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9). 59-68.
- 백승호 · 김영진 · 박철상. “규장각 소장 중국본에 압인된 정조 장서인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339-374.
- 안미경. “조선조 역학서의 판종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집(서지학회, 1990). 603-634.
- 양오진. “朝鮮時代 直解類 漢學書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35권(중국어문연구회, 2007). 21-47.
- 윤병태. “經書正音字考.” 『圖協月報』 제15권 제11호(도서관협회, 1974). 20-24.
- 윤상기. “한국 고찰자명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61-85.
- 장인진. “조선후기 譯官族譜의 考察 - 『金山李氏世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4권(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121-172.
- 정지연. “조선 초기 文科 講經科目的 변화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0.
- 한국계보연구회 편집부. “『川寧玄氏世譜』(1867년, 元).” 『한국계보연구』 5(한국계보연구회, 2014). 195-262.

3. 사이트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아담문고(<http://www.adan.co.kr/products/category.php>)
-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 한국족보자료시스템(<http://jokbo.skku.edu/index.jsp>)

4.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84년 12월 10일자.